

## 『 대나무의 숨결이 살아있는 생태도시 담양 』

지리교육과 1학년 서지에

## 1. 담양군 개관

담양군은 전라북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형상은 거의 직삼각형이다. 북동쪽으로는 전라북도 순창군, 동쪽은 곡성군, 남동쪽은 화순군, 남쪽은 광주광역시, 서쪽은 장성군과 각각 시·군 경계를 이룬다.

담양은 길이에 있어서 동서보다는 남북이 긴 모양인데, 중심부의 북쪽은 담양읍, 남쪽은 남면, 북쪽은 용면, 동쪽은 금성·무정·대덕면이 위치하고 있다. 크게 동과 서를 잇는 무정면과 봉산면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며, 북부지역은 담양읍이, 남부지역은 창평면이 중심지이다.



《담양군 관내도》

담양의 면적은 455.12km<sup>2</sup>로 전라남도 전체 면적의 약 3.8%를 차지한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20,294세대, 50,865명이 거주하고 있다. 담양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차 산업 55.0%, 2차 산업 16.2%, 3차 산업 28.8%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담양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3대 대나무 주산지로서, 전국에서 가장 질이 좋은 죽림과 죽세공품은 특산물로 담양군을 대표하고 있다.

## 2. 담양의 역사

담양(潭陽)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담양도호부조에 따르면, 「본래 백제 추자해군이었는데 신라 때 추성군이라 바꾸었고, 고려 성종 14년(995)에 담주도단련사를 두었다가 후일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어 나주에 복속하게 되었다.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두었고, 공양왕 3년(1391)에 울원현을 겸임케 하였다.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본 담양군은 담양읍과 고서·금성·대덕·무정·대전·봉산·수북·월산·용·창평의 11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담양군의 행정구역을 이루는 중요한 골격의 형성은 1914년 일제에 의해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조치일 것이다. 즉 이때 담양군과 창평군을 합하여 담양군을 이루고 창평군 관할이었던 옥과면은 곡성군에 이관시키며 그밖에 현 대전면, 수북면이나 남면을 이루는 지역은 광주시와 장성군의 관할에서 이속받기도 하였다.

### 3. 담양의 지리적 특징

#### 1) 담양의 지형

담양의 지형은 지세의 흐름상 북부-동부-남동부의 산지, 중앙-서부의 평지로 구분된다. 북부-동부-남동부의 산지는 북부 고산지대, 동부 저산지대, 남동부 산악지대로 나뉜다. 북부 고산지대는 불대산(602.4m), 추월산(729m), 병풍산(822.2m), 산성산(572.7m), 광덕산(583.7m)등의 높은 산들이 연결되어 있다. 남동부의 산악지대는 국수봉(557m), 만덕산(504m), 연산(505.4m)등 무등산의 여맥들이 솟아서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룬다. 이와는 달리 동부의 저산지대는 구릉성 산지로서 고개가 생겨나 순창군과 곡성군 등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이룬다.

담양군의 하천은 크게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영산강 수계에 속한다. 영산강의 수계는 본류와 2개의 지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류는 영산강의 발원지인 용면의 용추봉 남사면에서 발원, 담양호, 담양읍 관류, 봉산면·수북면·대전면의 면계를 이루면서 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2개의 지류는 오례강과 증암강인데, 오례강은 대덕면 국수봉에서 발원하여 창평면을 관류하여 봉산면에 이르고, 증암강은 무등산 북사면에서 발원하여 고서면을 관류, 봉산면에 이른다. 여기서 영산강 본류와 합류되어 남서쪽으로 흐른다.

#### 2) 대나무 재배의 북한계선과 담양의 위치

마을이 있으면 대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는 곳엔 마을이 있어 예로부터 竹郷(대나무고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기후와 토질이 대나무가 자라기에 알맞아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의 대나무 밭을 가지고 있다. 대나무는 원래 중국 하남지방이 원산지로서 아열대성 식물이며 벼과에 속하고 지구상엔 약 3,200여종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좋은 갯대, 조릿대, 고려조릿대, 성대, 타람조릿대, 이대, 지주이대 등 5속 19종이 있으며 현재까지 도입종을 포함해 5속 70종이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호남, 영남 지방이 주산지인데 태

안반도의 서해안지방에서 강원도 고성지방의 동해안을 북방한계로 보고 있다.

농작물의 북한계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다. 최한월 평균 기온, 온량지수(적산온도)<sup>48)</sup>, 무상일수<sup>49)</sup>가 바로 그것이다. 대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3^{\circ}\text{C}$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담양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이에 부합하고 토질이 좋아 대나무 재배에 최적지이다.

### 3) 대나무의 분포

#### (1) 세계의 분포

대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남미나 호주 등지에도 분포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동남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인도 300만 ha, 미얀마 150만 ha, 대만 17만 ha, 일본 17만 ha이고 우리나라는 약 5천 ha이다. 기타 남미 에콰도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도 수십만 ha의 죽림이 있다.

#### (2) 우리나라의 분포

대표적인 재배 대나무 종은 왕대, 솜대 및 맹종죽이며, 분포 면적은 약 5,360ha로 그 중 왕대가 2,996ha, 솜대가 2,294ha, 맹종죽이 70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조죽, 이대 어평죽등도 일부 재배되고 있다. 지역별 분포현황은 전남 2,650ha(49.4%), 경남 2,039ha(38%)로서 전체죽림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전북, 경북, 충남·북의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지역별로 대나무의 대표적인 재배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계선과 농업지역》

출처:사진과 그림으로 이해하는 지리학습

48) 월평균 기온이  $5^{\circ}\text{C}$  이상인 달의 월평균기온과  $5^{\circ}\text{C}$ 와의 차이를 연간 합산한 적산온도를 말한다. 온량지수는 식물분포 및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온량지수는 1945년 일본의 기라가 고안했다. 온량지수는 온대식물대와 일치하며 수직적으로도 이 수식이 잘 맞는다(건조지역은 제외). 세계 각지의 온량지수를 계산해보면 0~300의 범위에 있다. 열대 및 아열대는 180이상, 온난대경엽수림은 85~180, 냉온대낙엽광엽수림은 45~85, 아한대침엽수림은 15~45, 툰드라는 15 이하이다.

49) 봄의 종상(終霜)에서 가을의 초상(初霜)까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무상기일이라고도 한다. 무상기간은 농작물의 한랭 한계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차의 재배는 170일, 보리는 90일, 면화는 200일 이상의 무상기간을 필요로 한다. 무상기간은 위도에 따른 남북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지형적인 특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 275일, 개마고원은 120일 내외로서 남북간의 차가 크다. 지역적으로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길고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길다.

죽순대	거제도에 많고 전라북도 익산이 북방한계선
왕대와 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와 서해의 북쪽에 분포</li> <li>*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북쪽으로 위치하여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이 북한계</li> <li>* 당진, 천안, 옥천, 김천, 대구, 영천, 강릉을 잇는 선이 그어지는데 이 선은 1월 평균 기온 <math>-2^{\circ}\text{C}</math>인 등온선과 일치하며, 한계선에 가까워질수록 키가 낮고 줄기가 가늘어지며 숲의 넓이가 좁아진다.</li> </ul>
오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 오죽헌</li> <li>* 동해, 삼척, 울진, 포항, 울산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좋은 대숲이 분포한다.</li> <li>* 대종천(토함산 발원, 동해로 흐름)~형산강(울산만으로 흐름)의 강변에는 대숲이 아름답다.</li> </ul>
서해안	당진, 서산, 태안, 광천, 대천, 서천~군산에 분포
내륙	천안, 공주, 대천, 담양
남부	담양~나주(영산강 줄기), 구례-곡성-광양-하동(섬진강 줄기), 산청~진주(남강 줄기)에 좋은 죽림 분포
제주도와 대숲	제주도는 남부지만 지반이 현무암층이고 강풍으로 좋은 숲이 없다.
조릿대, 갯대, 신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안, 울릉도</li> <li>* 추운 곳에도 분포</li> <li>* 신이대는 함북 명천에도 분포</li> </ul>

#### 4. 담양의 관광자원

##### 1) 소쇄원

소쇄원은 양산보가 은사인 정암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능주로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출세에의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숨어 살기 위하여 꾸민 별서정원이다. 주거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후원(後園)이며, 공간구성과 기능면에서 볼 때에는 입구에 전개된 전원(前園)과 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계원(溪園) 그리고 내당(內堂)인 제월당(霽月堂)을 중심으로 하는 내원(內園)으로 되어 있다.

## 2) 송강정

송강정은 송강 정철이 조정에서 물러나 4년 동안 조용히 지내던 정자로, 송강정이라는 이름은 정철의 호인 송강에서 비롯된 것이다. 죽록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1955년에 고쳐지었다. 가사문학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정철의 ‘사미인곡’은 바로 이 송강정에서 지어낸 작품이다.



## 3) 면양정

면양정은 중종 28년(1533)에 면양정 송순선생이 관직을 떠나 선비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던 정자로, 퇴계 이황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과 학문에 대해 토론하던 곳이다. 면양정은 간소한 양식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커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가사문학 관련 관광지 분포도》

출처:담양군청

## 4) 한국 대나무 박물관

담양은 전국 유일의 죽제품 주산지로서 보존, 전시, 시연, 판매 등 종합기능을 수행할 공간을 갖추어 죽세 문화 전통 계승과 죽세 공예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며, 도시 근교의 이점을 살린 관광 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 대나무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담양의 죽세 공예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하여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강인성과 탄력성 등에 있어 세공(細工)에 알맞은 대나무를 사용하므로 품질 또한 우수하며 전국적인 죽제품 유통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곳 대나무 박물관은 죽세공예의 전통을 이어가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죽제품의 보존, 전시, 제작, 체험, 판매 그리고 관광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종합단지로 구성되어 1998년 3월 12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 5. 담양의 대나무 신산업화

### 1) 배경

담양은 전국의 대나무 주산지로서 대나무의 무한한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공의 죽세공예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나무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활로 모색이 시급했다. 따라서 대나무를 신산업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의 Bio 상

품을 개발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불씨를 지피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대나무 신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2) 대나무 산업의 일반현황

담양의 대나무 면적은 1,802ha로, 전국 대나무 밭 면적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담양의 죽제품 생산 가구는 135가구이고, 대나무 신산업 업체는 12개소이다. 대나무 신산업 업체들은 대나무 비누, 대잎차, 대나무 숯, 죽염된장, 죽초액, 천연염색, 대나무 조명 등을 제작하여 대나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대나무 숯의 실내 공기 개선 효과, 대잎 김치의 개발 및 상품화 연구, 대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스포츠 음료 생산 기술 개발 등 대나무 신산업 연구개발(R&D)도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 3) 주요성과

특히, 의장, 상표를 합하여 총 127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담양특화자원 대나무를 이용한 신산업 기반구축’이라는 사업명 아래 약 64억을 투자하여 대나무 관련 산업·기술·인적 DB 및 포털 사이트 구축, 기능성 신소재 개발, 대나무 관련 제품 시장조사 및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 수립, 기업 애로 기술 및 첨단 기술 이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등 네트워킹,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사업을 벌이고 있다.

## 4) 발전 가능성

대나무는 버릴 것이 전혀 없는 담양의 귀중한 향토자원일 뿐만 아니라, 그 약리 효과도 뛰어나며 담양 고유의 최고의 브랜드이다. 그리고 현재 고부가가치의 바이오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대나무 신산업화는 그 무한한 경제성으로 인해 담양 산업 경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참고 문헌》

- 한국지리정보연구회 / 2004 / 자연지리학사전 / 한울

### 《참고 사이트》

- 담양군청(<http://www.damyang.jeonnam.kr>)
- 사진과 그림으로 이해하는 지리학습 (<http://blog.naver.com/tnstn96?80007296028>)
- 한국 사이버 대나무 박물관(<http://www.damyang.go.kr/neal/museum>)
- 한국의 대나무 <http://www.koreabamboo.com/>